

일반치주염에서 주로 나타나는 black-pigmented Bacteroides 및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균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Gram음성 cocci, rods 등이 주로 나타났다. Streptococci 균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Gram음성 cocci, rods 등이 주로 나타났다. Streptococci 중에서 S. saguis II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진균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 이에 따라 상기 질환은 진신질환을 동반하는 사춘기전 치주염으로 진단되었다.
4. 상기와 같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혐기성 세균에 유효한 tetracycline(750mg/day)을 2주간 투여한 결과 부풀화된 치조골은 탈락되었으며 치조골 상부는 새로운 치은부착상피로 회복되었다. 동시에 Betadine용액으로 구강청결을 시도하였고 주 1회 치태제거 및 치조평활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환자는 치은의 염증은 감소되었으나 점막 및 혀의 궤양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간혹 재발하여 Oradexon 투여할 경우 일시적 치유현상을 보였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때 이 질환은 진균이나 특정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보다는 Virus 혹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염세균의 보다 정밀한 분리, 동정과 함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된다.

● 외과적 치주치료 후 동통에 대한 Fenoprofen의 진통효과에 관한 연구

최상목 ·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대상환자 45명중 86.7%인 39명의 환자가 술후 동통을 수반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었으므로 대상환자로 선택되었다. 이는 치과 영역에서 진통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Curtis 등이 실험한 치주수술 후와 매복 지치의 외과적 발치 후 나타나는 술후 동통의 빈도수인 70%내지 97%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enoprofen을 복용한 실험군에서는 대다수의 환자에서 높은 진통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시간당 동통 지수차와 시간당 동통 완화지수에서 Fenoprofen을 투여한 실험군을 대조군과 비교할 때 확실한 진통효과를 나타내었다.

Fenoprofen의 안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Fenoprofen의 실험군에서 4명의 환자에서 위장장애 혹은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위장장애를 보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소 만성적 소화불량을 갖고 있는 환자이었다. 또한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에서도 두통 및 오심을 호소한 환자가 3명이었다. 통상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여부는 단기 복용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기복용 실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부작용 정도는 Aspirin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또한 그 부작용 정도도 미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analgesic efficacy of fenoprofen after periodontal surgery

S. M. Choi, S. B. Han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University.

The analgesic efficacy of Fenoprofen calcium compared with placebo was evaluated by a double-blind technique. Subjects were 45 SNUDH dental out-patients undergoing the periodontal surgery and each subject was evaluated hourly for six hours. Fenoprofen 200mg was superior to placebo in all parameters of analgesic efficacy and had little adverse effect.